

데 스 크



조 상 운
편집국장

지구촌이 온통 난리다. 코로나19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마스크대란이 뒤따랐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 이어서다. 호주, 일본, 독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는 한 차원 뛰어넘어 ‘휴지 사재기 대란’이다. 우리는 심심찮게 각종 대란(大亂)을 경험하게 된다. 가장 흔한 예로 교통대란, 쓰레기대란, 유통대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없거나 부족하거나 넘쳐나고, 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져 어지러워진 상태가 되면 난리가

난리(亂離)

났다고 한다. 그나마 앞의 난리들은 소동으로 일단락되는 경우다. 일찍이 한반도에서는 6·25 전란을 비롯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숏한 전쟁으로 인한 난리 통을 들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서는 전쟁 등에 의한 것보다 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난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난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전쟁보다 더 두렵기까지 한 것이 자연재해다. 폭염과 가뭄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다. 지진 등도 공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완전한 해결 없이 힘겹게 버티어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난리는 극복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 대책을 세우거나 방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난리 뒤에 더 큰 난리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난

극복으로 이어졌던 IMF환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위기를 넘기 위해 합심동체가 됐다. 난리 통을 비교적 슬기롭게 넘긴 셈이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후에도 난리는 쉬었다. 서두에 소개했듯이 코로나19라는 감염 병은 범국가적 차원을 넘어 지구촌 난리가 됐다. 방역과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도대체 끝이 언제일까 하는 게 가장 큰 궁금증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격언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난리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주역인 선량을 제대로 뽑는 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느 덧 스물한차례에 이르렀다. 시시비비를 떠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장 큰 ‘뽑기 대회’이기도 하다. 오늘(27일)까지 후보등록이 이뤄진다. 그간 정치권은 야단법석이었지만 정책도 이슈도, 공약 모두 코로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버렸다. 이제 다시 선거일까지 추가적인 난리법석이 있게 된다. 난리법석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인물’들을 선택해야 하는 게 유권자들의 운명이다. 결국 코로나 대란 속에 선택해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난리(?)가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난리를 벗어나거나 극복하기 위해선 냉철(冷徹)한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것 뿐이다. 그리고 실천은 투표로 한다.

사설

해외서 들어오는 입도객 관리가 문제다

제주지역 방역이 갈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고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국내 입도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는 해외 입도객까지 신경쓰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페인을 다녀온 입도객과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도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14명(도민 11명, 외국인 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검사는 제주도가 이날부터 ‘특별입도절차’를 시행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등 다른 국가를 방문했던 입도객의 경우 건강기초조사서를 통해 본격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외 입도객 관리에 허점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19일부터 시행한 특별입국절차 전에 입국한 입도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지난 24일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은 입도객은 특별입국절차 전에 입국(18일)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입국절차 실시 전 입국자의 명단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방역망을 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확진자가 제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틀새 3명이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을 다녀왔던 입도객(2명)에 이어 25일에는 제주 출신 유령 유학생(26·여)이 일곱번째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4박5일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19)도 하루만인 2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입도객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 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코로나19가 유럽과 북미에서 검사를 수 없이 번지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의 ‘소·시·민’ 시책을 주목한다

서귀포시가 일상생활에 밀접하면 서도 소소한 현안들을 서비스해 주는 시민중심의 민생사업 ‘소·시·민’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시책은 날이 갈수록 행정수요는 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행정의 과부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주목 받을만 합니다. 몇 가지 눈길을 끄는 ‘소·시·민’ 시책은 청소년 희망택시 사업, 소상공인 낚은 간판 교체지원, 저소득층 빈집 무료 임대, 드론이용 농약방제 지원, 경로당 순회 건강장비 수리 등입니다. 분청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생활불편, 현장행정, 소득지원)에 관련된 시책 발굴을 통해 올해 총 54개에서 간주된 결과입니다. 청소년 희망택시 사업은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후 안전한 귀가를 돕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려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안락 사랑의 집 프로젝트’

인 저소득층 빈집 임대시책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후 3년 간 무료로 빌려주는데 현재 3호까지 입주했고, 올해 화순·동광리에서 추진됩니다. 농가일손을 덜고, 농약피해 예방도 되는 드론이용 농약방제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낚은 간판교체를 지원해 주거나,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장비를 수리해 주는 서비스, 예술인들의 현장 재능기부를 통한 ‘우리 마을 진동산 노는학교’ 사업 등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늘 현장과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이 소극행정에서 벗어나려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시행 중인가 하면 제주도 역시 올해 1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할 정도입니다. 이제 지역민들의 생활 속 작은 현안들을 해결해 작은 감동,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사례들은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열린마당

“산불 잦은 봄철 주의하세요”



문 성 범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봄은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440건 발생하는 산불 중 봄철 발생건수는 281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4%이다. 그 중 3월에 약 114건으로 3~5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50건(34%), 소각산불 132건(30%)이 대부분이다. 요즘처럼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날수록 산불이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진다. 2019년 강원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던 고성 산불에서 알 수 있듯, 봄철 건조해진 날씨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지기 쉽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성냥, 라

이터, 버너 등 화기사용을 금해야 하며,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및 흡연 등은 피해야 한다. 또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창 밖으로 담뱃불을 버리거나 농산 부산물,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만일 산에서 화재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자는 자세한 위치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높은 장소를 피하고 바람의 방향을 감안해 불길 확산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화재보다 낮은 장소, 도로 및 바위 위로 대피해 불길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에 탈 수 있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치우도록 하고 외투나 돗자리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에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봄철 산불 예방으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아름다운 우리의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민주당 내홍 심화… 당원 집단 탈당

제주시갑 전략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당원 2100명이 제주시갑 선거구 전략공천에 반발하며 집단 탈당해 눈길. 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선거를 통한 혁명’ 외면, ‘평화와 인권이 밥먹여주나’라고 발언한 후보공천에도 이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낙하산 공천행위와 민주당의 가치와 정통성에 맞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 방관자세가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됐다”고 언급. 특히 추후 탈당운동 전개까지 예고하면서 지지층 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1대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 오은지기자

박 전 동부시장 징계 감경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내려진 징계가 감경.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박기남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 고유정 체포 영상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지

난해 12월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달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영상 제공에 고의성이 없고 제공 목적도 부실수사라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 불문경고는 인사카드에 기록되지만 1년 후 말소되는 것으로 징계 종류에 미해당. 이상민기자

“소극 행정 말고 신속 행정”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주문.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학교 훈디거눔’과 학교 방역 예산을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과 예비비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극 행정이 국가 위기 극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 김지은기자

부 고

김현철(서일디자인) 조모 전주이씨 옥선(향년 95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6일 02시 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3월 27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0년 3월 28일(토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7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손 자 김 현 철

현 석

손 녀 김 현 진

※ 연락처 : 김현철 010-7132-1469
김현석 010-2988-146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영범(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7일

아	들	강태근	며느리	이명연
		태준		김영아
		태조		이명선
딸	강경자	사위		진용국
	화자			고영진
	인자			현상휴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원희(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7일

남	편	양대현		
아	들	양석훈	며느리	김현영
딸	양복실	사위		김성택
	오복			고태영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제주도정 소식

**도민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원대상자 공개 모집**
접수 기간: 2020. 3. 25.(수) ~ 4. 10.(금)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에 따른 협조 알림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라 축소하여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 도민과 유족 여러분께서는 올해 추념식에는 각자의 자리(자택 및 직장 등)에서 중계방송을 시청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평화공원 방문 시에는 당일 12시 이전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3일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고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